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이주과정과 사회문화적 적응: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

주종택*

단독/순천향대학교

Joo, Jong-Taick (2012) "Migration Processes and Sociocultural Adaptation of Latin American Migrant Workers in Korea and Japan"

ABSTRACT

Latin American migrant workers in Korea have kept many unique characteristics in their migration history and process, and their patterns of adaptation can be compared with their counterparts in Japan. The workers' migration from Latin American to Korea is made difficult by long distances and linguistic and cultural differences. Nevertheless, after following the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of Nikkeijin and other Latin Americans to Japan, some workers were able to come to Korea to find work.

However, unlike their counterparts in Japan, Latin American migrant workers in Korea did not become an object of attention in the society and they could not exert an extensive influence in Korea because their population is too small. Moreover, Korean immigrants in Latin America have formed different types of transnational communities in Latin America compared with Nikkeijin, so they were unable to help the migrant workers to adapt themselves smoothly to the Korean society. Accordingly Latin American migrant workers in Korea have taken a different route in their efforts to participate in lo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activities. For example, they hesitate to be exposed to the wider society and they hide their cultural differences as much as possible. Nevertheless, they have been included in the Korean sociocultural structure and are even evaluated positively by some distinctive Korean cultural elements.

Frequently it may not be useful in economic terms to predict or evaluate problems related with causes, processes and historical backgrounds, patterns, contents, effects and results of labor migration. Even though labor migration can take place where significant economic differences exist between the migrant-sending and migrant-receiving societies,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of labor migration and the

* Jong-Taick Joo is a professor of International Cultural Studies at Soonchunhyang University, Rep. of Korea (Email: jtjoo@sch.ac.kr).

adaptive processes of migrants are tremendously affected by diverse sociocultural factors. In part, migrant workers from Latin America share similar features with migrants from China or other parts of Asia. However, Latin American migrants maintain their own unique characteristics because of the earlier migrants' prior experiences in Japan and their ways of accepting or declining new cultural elements in Korea.

Key Words: labor migration, migrant workers, Korea and Japan, sociocultural adaptation, Nikkeijin / 노동이주, 이주노동자, 한국과 일본, 사회문화적 적응, 닛케이진

서론

현재 불법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중남미 출신의 이주노동자의 수는 약 1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몇 년 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수치이지만 그래도 이들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꾸준하게 남아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의 중남미 이주노동자는 10년 이상 장기체류를 하면서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형편이다. 이주자를 받아들이는 사회의 입장에서 이주노동자의 증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나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한국의 경제적 실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에 어떤 경로로 들어오게 되었으며,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이주의 역사와 과정에 있어서 한국과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비교연구하여 한국에서 중남미 인들의 이주가 갖는 성격과 의미, 영향을 명확히 분석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특히 초기의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이 일본을 거쳐서 왔다는 점에서 일본의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우리에게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 일본과 한국의 중남미 이주노동자는 이주의 배경과 원인, 사회문화적 관계의 형성과 영향에 있어서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양국의 이주노동자 사회가 나름대로 독특한 성격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일본과의 비교연구가 더욱 의미가 있다. 비록 일본에 비해 한국의 경우에는 중남미 출신의 이주노동

자의 수가 대단히 적어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회적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지 몰라도 한국사회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결국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던 중남미 사람들의 한국으로의 노동이주는 이주자 자신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도 새로운 변화를 초래한다. 즉 비교적 정보를 얻기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여행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저렴한 아시아의 인접국에서 오는 이주노동자들과는 또 다른 문제를 제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남미에서 온 이주노동자의 수가 많지 않다고 해도 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직까지 한국의 경우에는 중남미 체류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거의 없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학술적 연구도 전혀 되어있지 않으며, 별도의 대책도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이 처한 현실과 문제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절실하게 요구된다.

노동이주와 사회문화 관계

노동이주는 기본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출신 국가의 경제적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선택하는 경제적 전략의 하나이다(Eversole 2005, 294; Massey et al. 2006, 39-40; Mooney 2004, 47; Pérez 2005, 68).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면 실제로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은 규모도 적지 않고 송금을 받는 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빈곤의 해소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Adams and Page 2005; Massey et al. 1998, 258). 때로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출신국가의 경제발전에도 새로운 자극을 주기도 한다(Martin 2006, 75). 그런 의미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경제적 활동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노동이주에 대한 관심은 노동시장과 노동에 대한 수요 등 광범위한 거시 경제적 관점에 쏠리고 있다(Trager 2005, 13). 한국에서도 이런 문제는 마찬가지로여서 대부분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연구가 경제적 문제나 정책 등 거시적 측면에 치중된 경향이 있다(Lee and Yi 2007, 157).

그렇지만 이렇게 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노동이주에서 모든 것이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이해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비경제적 요인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즉, 노동이주의 역사, 과정, 이주자의 사회적 적응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 이외에 사회문화적 요인 또한 중요하다. 예를 들면 경제적 궁핍을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임금 수준이 자신이 현재 거주하는 국가보다 높은 국가를 택해서 노동이주를 결정하지만 언제 어느 지역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들이 일을 하러 갈 것인지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한국의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처럼 이동해야 할 거리가 매우 멀고 비용도 많이 들며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고 위험부담이 크다면 단순한 경제적 임금의 차이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이주를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의 경우에 중남미 출신의 이주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다 한국이 임금수준이 다소 높고 경제적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해도 이동해야 할 거리가 너무 멀고 문화적 차이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이주를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중남미인들의 이주에서 사회문화적 요소는 절대적으로 무시하지 못할 요소가 된다. 더욱이 일본의 경우에는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수용과정에 이들의 종족성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문화적 변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노동이주를 시작하고 난 후에도 경제활동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새로운 사회의 사회문화 구조는 이주노동자의 생활과 가치관, 이념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에 체류하는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이 대부분의 합법적인 지위를 갖추지 못해서 한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국에서 얼마나 머물면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할 것인지는 한국의 경제적 상황과 더불어 문화적 특징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주는 이주 자체의 유형뿐 아니라 사회문화 체계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사회에 반영된다는 것을 감안하면(Brettell 2000, 99),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사회문화 구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노동이주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이주에 접근하는 관점이 경제결정론에 빠져서 지나치게 경제적 요소만을 강조하고 정치·사회문화적 요소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Sato 2004, 32). 특히 이주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압력이 비경제적 변수들보다 반드시 우선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Tsuda 1999, 23).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한국의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이 이주역사와 과정, 한국에서의 적응 형태 등을 이해하는데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조사대상과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2011년 8월에서 11월까지 실시되었다.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갖지 못해서 사회활동이 제한되어 있어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서울에 위치한 천주교회에서 21명과 개신교회에서 1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이주의 역사, 원인, 과정, 이주 후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활동 등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그 중에서 일부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집중면접과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 37명중에 18명이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는 인천과 경기지역에 살고 있다. 연령층은 젊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10대가 1명, 20대가 8명, 30대가 16명, 40대가 9명, 50대가 2명, 60대가 1명으로 나뉘어 있다. 성별은 남자 18명, 여자 19명으로 큰 차이가 없다. 직업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13명, 상업 7명, 가정부 4명, 건축 노동자 2명 등이고,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월 급여는 최저 6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라고 응답했는데, 평균적으로 120만원에서 130만원을 버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일본의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이주역사와 과정, 사회문화관계

한국의 중남미 이주노동자는 일본의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더불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노동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본계 중남미 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이와 더불어 일본인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은 다른 중남미 인들도 일본에 와서 이주노동자로 일을

하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 1990년대에 일본에서 일을 하던 일부의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와서 일자리를 찾게 되었고, 이것이 한국사회에도 본격적으로 중남미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이 활동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의 실상과 역사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일본의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의 이주과정과 현황에 대해 이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닛케이진의 일본으로의 이주

일본 정부는 북미나 유럽 국가와는 달리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여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많았지만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일기를 꺼렸다. 특히 단순 육체노동자의 입국을 전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이 되면서 서서히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일본에 들어 오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서비스업의 발전과 더불어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저임금 노동력을 원하게 되었고, 변화하는 경제적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서서히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노동자의 수가 증가하자 일본정부는 부족한 노동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이주노동자를 통제한다는 명목으로 이민법을 개정하여 1989년 12월에 의회에서 통과시켰으며, 1990년 6월 1일부터 발효하였다. 이 법을 근거로 일본정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계 혈통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본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허용하였다(Mori 2002, 237; Ohmi 2005, 107; Sato 2004, 24).

결국 1990년의 이민법 개정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집단은 일본인의 혈통을 유지하면서 중남미의 여러 국가에 거주하는 닛케이진(日系人)이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피부색과 문화, 언어가 전혀 다른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노동자들보다 외모가 일본인과 유사하고 문화적 차이가 거의 없다고 간주되는 닛케이진을 고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Kajita 1995, 11). 중남미에서 온 닛케이진이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니고, 세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 자격을 취득하였다. 그렇지만 2세와 3세의 경우에도 별다른 차별 없이 일을 할 수 있고, 비자도 상대적으로 쉽게 계속해서 갱신되었다(Kajita 1995, 12; Kondo 2000, 6; Ogawa 2005, 9). 심지어 일본계 혈통을 갖지 않아도 일본계 혈통을 가진 닛케이진과 결혼하면 일을 할 자격이 생긴다(Oda 2010, 518).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잘 아는 1세에 비해 대부분의 2세와 3세들은 일본어

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본문화도 거의 알지 못했다.

중남미의 닛케이진이 일본에 와서 일자리를 찾게 된 것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중남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페루의 경우에는 1988년에 인플레이션이 1,722.3%였고, 1989년에는 2,775.3%, 1990년에는 7,649.7%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 빠졌었다(Aquino Rodríguez 1999, 4). 이런 실정은 브라질이나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서 일하는 닛케이진의 수는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였다. 중남미에서 일본으로 일을 하러 온 최초의 닛케이진은 1985년에서 1989년 사이에 왔다 (Mori 2002, 242). 1980년대 후반에는 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으나 1990년 이민법이 개정된 이후에 대규모의 이주가 발생했다. 일본의 등록 외국인 수가 1988년에는 브라질인 4,159명, 페루인 864명에 불과하였으나, 1989년에는 각각 14,528명과 4,121명, 1990년에 각각 56,429명과 10,279명이었다(Aquino Rodríguez 1999, 6; Vela Borda 2006, 136). 그 후에도 전체 닛케이진의 수는 1995년에는 193,748명, 2000년에는 233,198명, 그리고 2003년에는 237,808명으로 증가하였다. 1996년이 되면 대부분의 일본의 산업 단지에서 닛케이진들이 일을 하게 되었다. 일본의 불법체류 노동자의 수가 1990년에는 106,497명, 그리고 2003년에는 220,552명인 것을 고려하면 닛케이진의 수가 전체 불법 이주노동자의 수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Kuwahara 2005, 33). 닛케이진 대부분은 비숙련 노동자로 일본에서 일을 하였다(Ohmi 2005, 108).

닛케이진의 수는 1990년대 후반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1997년부터는 증가의 폭이 다소 둔화되었다. 이것은 일본국적을 소지하지 못한 닛케이진의 일부가 영구거주자로 지위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1998년에 단지 5,853명에 그쳤던 영구거주자의 수는 2003년이 되면 58,984명으로 크게 늘었다(Ogawa 2005, 9; Tanno 2010, 121). 초기에는 닛케이진들이 이주노동자들의 전형을 따라서 몇 년 동안 일을 하여 돈을 모은 뒤 본국으로 돌아가고 필요하면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하는 형태를 보였다. 그러나 점점 일본에 정착하려는 닛케이진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Watanabe 2005, 93). 최근에는 일본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자 일을 하러 오는 닛케이진의 수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줄었다(Nishida 2009, 429).

중남미로 향한 일본인의 이주와 닛케이진

일본인의 중남미 이주는 19세기 말에 시작되었다. 당시의 메이지 정부(1868-1911)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인구를 줄이며 가난한 농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서구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송금을 통해 해외자본을 받아들이기 위해 이주정책을 실시했다(Takenaka 2004, 78; 2009, 1329). 이주 초기에 일본인들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부당한 처우로 인해 고초를 많이 겪었다. 브라질의 사례를 보면, 20세기 초에 브라질의 화폐가치가 하락하자 상대적으로 수입이 줄어 브라질에서 노동이주를 하던 사람들이 일본으로 돈을 송금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특히 1929년에는 세계 경제위기가 닥쳐 플랜테이션의 운영이 힘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상당수의 일본인들이 플랜테이션을 떠나서 자신들의 소규모 토지를 직접 경작하기 시작했다(Adachi 2004, 57). 페루에서도 사정은 유사해서, 플랜테이션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경제적 기회를 찾아 대도시로 재이주했다(Takenaka 2004, 84). 이들은 이주한 국가에서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동질적인 사회를 구성하며 생활하였고 이로 인해 다양한 차별을 받았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은 닛케이진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패전으로 전쟁이 마무리되자 대부분의 브라질의 닛케이진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브라질에서 태어난 자식들과 함께 브라질에 남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이전과는 달리 일본인이 아닌 브라질 사람들과의 결혼도 시작되었다(Nishida 2009, 432). 이렇게 일본어 대신에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를 배우고 주류사회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동화하려는 현상은 볼리비아나 파라과이 등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Amemiya 2002, 99; Kasamatsu 2002, 139). 이와 더불어 일본국적을 포기하고 중남미 국가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특히 일본정부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자녀들은 거의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닛케이진들과 일본사회와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닛케이진들은 상징적으로만 일본과 연결되어 있는 실정이었다(White 2003, 316). 1998년 현재 닛케이진은 브라질에 약 130만 명, 페루에 약 1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에 일본국적 소지자는 브라질에 83,803명, 페루에 2,620명이 있다(White 2003, 314).

이런 노력과 더불어 농업을 포함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일본인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성공하게 되자 중남미 사회에서 일본인들에

대한 평판은 크게 호전 되었다(Roth 2006, 613). 1970년대가 되면 브라질의 넛케이진들은 농촌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윤택해졌을 뿐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전문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생활수준이 개선되었다. 현재 약 70%의 넛케이진들이 도시에 거주하고, 그 중에서 43.3%가 전문직이나 사무직에 근무하며, 20.9%는 자영업에 종사한다. 또한 정치적인 활동도 왕성하여 정치적인 지위를 담당하는 사람도 크게 늘었다(Adachi 2004, 63-64; Masterson 2004, 253).

1980년대 중반이 되면서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중남미 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되었다(Nishida 2009, 428). 이렇게 넛케이진들이 일본으로 가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는 일본에서 3D 업종에 속하는 가장 힘든 일을 해도 브라질 중산층의 소득의 5-10배를 벌 수 있기 때문이다(Adachi 2004, 65). 이들이 처음에 일본으로 갈 때에는 자신들의 부모나 조부모의 고향으로 일을 하러 간다는 점에서 기대도 컸다. 그러나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이들은 일본인으로 대접받는 대신에 ‘가이진’(外人)이라 불리며 차별을 받게 되었다. 일본으로 노동이주가 시작되면서 일부의 넛케이진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경제적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수치스럽게 생각하였다(Tsuda 1999, 14). 이러한 일본으로의 노동이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때문에 일본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일부는 자신들이 일본에서 일을 하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일본을 돌아보고 오거나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다녀왔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으로의 이주노동자가 증가하고 이들이 일본에서 돈을 번 다음에 귀국하여 좋은 집이나 차를 사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조금씩 바뀌었다(Tsuda 1999, 15).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일본에 가서 일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곤란을 겪으면서 돈도 거의 모으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 노출되지 않는다(Tsuda 1999, 16). 한편 일본에서 일을 하여 일정한 돈을 번 다음 중남미로 돌아온 일부의 사람들은 소득이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기도 한다(Adachi 2004, 68; Tezuka 2005, 51).

넛케이진의 증가와 중남미 이주노동자

넛케이진들이 일본에 가서 이주노동자로 일을 하는 것을 관찰한 많은 브라질

인들과 페루인들은 자신들도 일본에 가서 일하기를 원하게 되었다(Adachi 2004, 71; Kajita 1995, 12). 특히 중남미의 경제적 상황이 20세기 말에 악화되면서 이런 유혹이 더욱 심해졌다. 게다가 닛케이진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일본사회와 일본의 일자리에 대한 정보도 널리 퍼지게 되어서 경제적 위기를 벗어나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중남미 인들에게는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진 셈이었다. 비록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일본에서 일을 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일본에 와서 일을 하는 중남미 사람들의 수는 닛케이진의 증가에 비례해서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허가를 얻는 닛케이진에 대한 규정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실제로 피부색이나 외형이 중남미인과 거의 같은 닛케이진 혼혈인의 경우에도 별 문제 없이 비자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3대를 거치는 동안 그 중에 한 명 이상만 일본인 혈통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닛케이진으로 인정을 받아서 자동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Pena and Ishii 2008, 1165; White 2003, 318). 또 닛케이진의 배우자나 자녀도 1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도 무제한으로 비자 갱신이 가능하다(Sharpe 2010, 358). 이런 점을 활용하여 많은 중남미 인들이 위조된 서류를 작성하여 닛케이진인 것처럼 위장하여 일본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었다(Kuwahara 2005, 36). 일부의 중남미 인들이 일본으로 와서 일을 하는데 성공하면 그 다음에는 자신들의 연결망을 통해서 더욱 많은 중남미 인들을 불러오게 된다.

처음에 닛케이진들을 받아들일 때에는 이들이 일본어와 일본문화에 익숙해서 일본사회에 순조롭게 적응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고 하면 고용주의 관점에서는 닛케이진이 아닌 중남미노동자들을 고용한다고 해도 문화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닛케이진보다 열악한 작업환경이나 낮은 급료에도 일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 더욱이 21세기에 들어서 일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나빠지고 실업률도 2010년 현재 4.9%에 이르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Yamada 2010, 5)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지고 이런 점에서 중남미노동자들이 별 무리 없이 받아들여졌다.

닛케이진이 아닌 순수한 중남미인으로 일본에 와서 노동이주를 하는 사람들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합법적인 허가와 절차를 쉽게 받아서 안정적인 상태에서 일을 하며 각종 권리를 인정받는

닛케이진과는 달리 중남미인들은 거의 불법으로 와서 매우 불안한 신분으로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수의 노동자가 일을 하는지 파악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참고로 브라질의 사례를 보면 2002년에 일본에 와서 일을 하는 전체 브라질인 중에 85.9%를 닛케이진이 차지하고 있다(Sato 2004, 22). 그렇다고 하면 약 10%이상의 중남미 출신 노동자들이 일본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닛케이진을 포함하여 일본에 머무는 중남미인들이 약 40만 명에 이른다는 것을 고려하면 순수한 중남미 출신의 이주노동자의 규모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남미 이주노동자와 일본의 사회문화 구조

일본의 입장에서 처음에는 닛케이진을 이주노동자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중남미 전체에 거주하는 닛케이진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인근의 아시아 국가들처럼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중남미의 닛케이진들이 다른 이주노동자처럼 상대적으로 빈곤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 영구히 정착하려는 사람들은 매우 적고 결국 거의 다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인종적으로 일본인의 혈통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문화적으로도 일본인이어서 일본사회에 적응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여겼다(Tsuda 1999, 11-12). 그러나 대부분의 닛케이진들이 실제로는 일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일본문화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거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충돌이 발생했다. 특히 일본에서 노동이주를 하는 대다수의 젊은 닛케이진들이 2세와 3세로서 일본어를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고 브라질이나 다른 중남미 문화에 익숙한 세대여서 문제가 커졌다(Tsuda 2003, 293). 더욱이 일본어를 거의 할 줄 모르고 일본문화에도 익숙하지 않은 닛케이진들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이지메’를 당하여 소외되는 경우가 흔했다(Ninomiya 2002, 253). 그래서 닛케이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일본사회에 미쳐 예기하지 않은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일본인들의 입장에서 닛케이진들은 값싼 외국의 저임금 노동력이고 오래 전에 잊혀진 이주자들의 후손인 셈이다. 그러나 닛케이진들은 중남미에서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닛케이진층에 중남미 국가에서 공장에서 단순 육체노동을 해 본 사람이 거의 없어서 처음에는 일본에서 일을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Higa 2002, 267). 이런 인식의 차이로,

일본인과 닛케이진 이주노동자들 사이에는 뚜렷한 단절이 존재하게 되었다. 일본인들은 생김새는 일본인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문화적으로는 전혀 다르고 심지어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거나 서툰 일본어를 사용하는 닛케이진을 만나면서 매우 놀라고 당황해 하며 심한 문화적 충격을 경험한다(Tsuda 2003, 297). 문화적, 종족적으로 상이한 외국인들과 달리 상당수의 닛케이진들은 일본인처럼 생겼기 때문에 일본의 문화적 기준을 따르기를 요구받는다. 따라서 닛케이진들이 다른 외국인들보다 심리적으로 훨씬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Tsuda 2000, 59; White 2003, 319).

이런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닛케이진들은 오히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들만의 문화적 특징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일본인과는 다르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또한 자신들이 일본인이라기 보다는 중남미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노골적으로 내세우기도 한다(Tsuda 2000, 56).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중남미 국가에 살 때에는 별 다른 관심이 없거나 무시하던 문화적 행위도 일본에서는 마치 그것이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Tsuda 2000, 61-67).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은 문화적으로 일본의 생활에 비교적 만족하고 있다. 일본인들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로 인해 치안이 불안해지고 사회문제가 커진다고 보는 데 비해 닛케이진들은 일본사회가 매우 안정되어 있고 위생과 치안 문제가 대단히 양호하다는 데에 큰 만족감을 보였다. 한 조사에 의하면 약 40%의 닛케이진들이 일본의 치안이 좋아서 계속해서 일본에 남아있고 싶다고 응답했다(Pena and Ishii 2008, 1169). 이런 이유로 일본에서 오래 일할수록 닛케이진들의 일본어도 능숙해지고, 이에 따라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간다(Pena and Ishii 2008, 1167).

한국의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이주역사와 과정, 사회문화관계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다른 북미나 유럽의 국가에 비하면 이주노동자들이 비교적 늦게 들어왔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조금씩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지리적 이점과 종족성을 바탕으로 대부분이 중국 국적을 소유하는 동포였다(Yi et al. 2009, 47). 1980년대부터 저임금노동력이 많이 필요해지면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도입이 불가피한 상태가 되었다. 1988년에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사증면제 협정체결, 무사증 입국의 허용, 입국 심사 간편화 등 출입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한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한국에 들어오기가 예전보다 쉬워졌다. 당시에는 조선족과 필리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등 동남아 및 남아시아인들이 대거 입국하였다(Lee and Yi 2007, 149).

한편으로 외국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의 동포들을 위한 정책도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이 경우에는 한국에 와서 일하기를 원하는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과 러시아의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조선족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이 많고 또한 단순 육체노동이라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회문화적 문제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어나 한국문화에도 비교적 익숙한 편이어서 문화적 충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임금이나 작업환경, 고용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다른 이주노동자와 유사하고, 한국사회에서 경제적 차이에 의한 차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문화적인 영역에서 대립되는 일은 흔하지 않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력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들어오는 이주노동자의 입국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외국인력 체류현황을 보면 2001년에는 85,506명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였는데, 2004년에는 423,858명, 2007년에는 424,508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와 더불어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체류자의 수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 불법 이주노동자는 1991년 41,877명, 1999년 135,338명, 2002년 188,995명, 2004년 180,948명, 2007년 184,632명으로 나타난다(Kim N. 2008, 70; Lee and Yi 2007, 150). 2000년대 초반까지 합법 체류자보다 불법 체류자가 더 많았다. 그러나 2003년 8월에 고용허가법이 제정되면서 국내 체류기간이 4년 미만인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면을 실시하여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한시적으로 급감하였다. 최근 들어 불법체류자가 다시 증가하여 2005년 말에는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Lee and Yi 2007, 151). 이렇게 불법으로 체류하는 이주노

동자의 수가 일정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아직도 동남아나 중국 등지에서 한국으로 일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고, 또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불법 이주노동자를 통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역사적 변화와 이주과정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찍부터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거의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등지의 국적을 소유하는 사람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한국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깝고 교통편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또 정치적, 경제적 교류가 빈번한 국가들로서 개인적으로 조금만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한국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국가들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중남미 지역의 사람들이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르고, 한국과의 교류도 빈번하지 않아서 정보도 획득하기 어려우며, 교통도 매우 불편하여 비용도 많이 드는 한국에 와서 일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일본에서는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해 일본인의 혈통을 이어받은 닛케이진들을 이주노동자로 받아들였고, 이와 함께 닛케이진이 아닌 중남미인들도 서서히 일본으로의 노동이주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되면서 중남미국가에서 일본에 대한 정보가 많이 퍼지고 일부의 사람들은 이웃 나라인 한국의 노동이주 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실제로 1990년대에 일본에서 일을 하던 중남미인 중의 일부가 한국에 들어와서 노동이주를 하였고, 이들이 형성한 연결망을 통해서 더 많은 중남미인들이 연쇄적으로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게 되었다. 물론 일본을 통하지 않고 한국으로 직접 와서 일을 한 사람도 존재하는데, 이들은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다. 또한 이들은 거의 결혼이민으로 한국에 왔거나 한국에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였다가 계속 체류하여 이주노동자가 된 사례이다.

면접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37명의 입국연도를 보면 1980년대에 1명, 1990년대에 2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2000년 이후에 입국하였다. 특히 2007년에 6명, 2008년에 5명, 2009년에 5명, 2010년에 7명, 2011년에 1명 등 최근에 이주한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 한다. 물론 1990년대나 2000년대 초기에 왔던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돌아갔기 때문에 실제로 초기의 이주노동자는 이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다. 이것을 보면 중남미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일을 하던 시기가

일본에 닛케이진과 다른 중남미인들이 와서 일을 하던 시기와 비슷하거나 조금 늦다. 구체적인 이주경로를 보면, 조사대상 37명 중에 4명이 다른 지역에서 노동이주를 하다가 한국으로 왔다. 그 중에 2명이 일본을 거쳐서 왔는데 이들은 1995년과 1996년 등 모두 1990년대에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들 두 명은 중남미에서 일본으로 가면 일자리도 많고 임금도 높다는 말을 듣고 일본에 갔다가 한국에도 비슷한 일자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한국에 와서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일본의 공장에서 3년간 일한 후에 1996년에 한국으로 오게 된 에우헤니아(Eugenia, 49세)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일본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에서 일본사회에 대해 신경을 그다지 쓰지 않았다. 그러나 닛케이진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대중매체나 사람들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계속 나와서 상당히 불편했다. 그리고 일터나 길거리에서도 마치 중남미인들 때문에 닛케이진들이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상실하고 중남미인들처럼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다. 그러다 보니 닛케이진들과 어울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또 닛케이진과 중남미에서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일을 두고 경쟁을 하는 것도 힘들었다. 그러다가 한국에 대해 정보를 아는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나머지 두 명은 각각 홍콩과 볼리비아에서 일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결국 2000년대에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직접 왔다. 페루에서 한국으로 일을 하러 온 그라시엘라(Graciela, 46세)는 자신이 한국으로 오게 된 과정을 이렇게 말했다. “페루에서 양계장을 10년 정도 운영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계속 닭이 병이 들어 죽어서 손해가 많이 나서 형편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페루의 경제적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새롭게 다른 것을 시도해 볼 엄두도 나지 않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1999년부터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던 페루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그에 의하면 한국이 매우 안전해서 살기 좋고 조용하며 일자리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2002년에 한국에 오게 되었다”. 중남미 이주노동자가 들어온 초창기에는 일부 사람들이 여행사 등을 통해서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나라라는 소식을 듣고 와서 일자리를 찾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이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고, 일본으로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본의 소식을 듣고 난 후에 한국도 비슷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왔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출신국가는 페루가 27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그 외에 과테말라 3명, 볼리비아 2명, 에콰도르 2명, 그리고 파라과이,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공화국 각각 1명씩이다. 특히 개신교회에 다니는 16명 중에 14명이 페루인이다. 이것은 주로 인간관계를 활용하여 선교를 하는 개신교회의 특성이 반영되어서 나타난 현상이다. 페루인들이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많이 오는 이유는 페루에서 비교적 관광비자를 얻어서 한국에 오기가 쉽고 지금은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큰 위험 부담 없이 여행 경비 정도만 마련하면 한국에 와서 친구나 친척 등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자리와 거주지를 구하는 실정이다. 결국 혼자서 자신만의 결정으로 한국에 오기는 쉽지 않은 여건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사람의 권유나 소개로 이주를 결정한다. 다른 조사결과에서도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으로 노동이주를 하려면 합법적 취업송출기관 혹은 불법 ‘브로커’라 불리는 다양한 해외 취업 알선자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일자리를 찾으러 관광안내소에 가거나 한국에 와 있는 친구나 친인척과 연락을 통해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경우도 많으며(Kim S. 2008, 157; O and Yu 2009, 62), 중남미 이주노동자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듯 개별적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이주가 보편적이지만 중국이나 동남아 등 다른 지역에서 오는 이주노동자에 비해 한국에 이주한 이후에도 제한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어서 이주노동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또 한국에 와서 일을 하면서도 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교환하기에 연결망이 충분하지 않아서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문제가 많다.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

한국에서 일을 하는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으로 오기도 어렵지만 막상 한국에 도착한 뒤에 다양한 불리한 조건 때문에 곤란을 겪는다. 일단 중남미 출신의 노동자들의 수가 적어서 도움을 받기도 용이하지 않다. 그나마 페루인들은 중남미 이주노동자 중에서 수가 많아서 여러 모로 유리한 점이 있다. 아직까지는 중남미 출신의 노동자들의 수가 적어서 정보를 공유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가장 많이 취하는

방법이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라고(Jang et al. 2008, 6) 하는데 이런 면에서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은 불리하다. 또 이주노동자들 사이에서 대부분의 교류는 같은 국적의 노동자들에게 국한되어 있어서(Kim S. 2008, 178)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은 이것마저도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나 NGO 등에서 많은 이주노동자가 있는 국가의 언어를 지원하는 조직은 있지만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이주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는 거의 없다. 다만 일부의 종교단체에서 종교적 모임만 지원하는 정도이다. 종교단체에서도 다수의 이주노동자가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별도의 도움이 없이 종교활동만 할 수 있게 허용한다. 심지어 여러 나라에서 온 이주노동자를 위한 예배를 보는 교회 안에서도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은 소수의 다른 나라의 이주노동자와는 언어와 문화, 생활방식이 상이해서 접촉하기 어려워 자신들끼리만 모인다.

중남미 출신의 노동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언어 문제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한국어를 접해본 일이 없고 또 한국에 와서도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조사대상자의 한국어 수준을 물어본 결과는, 매우 높다 1명, 높다 3명, 보통 11명, 낮다 16명, 매우 낮다 6명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한국어 실력이 보통이거나 약간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어 수준이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대화 정도만 가능한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이들의 한국어 실력은 매우 낮고 다른 중국이나 동남아 노동자들보다도 현격하게 부족한 실정이다.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은 다른 나라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에 비해 자신들이 간단한 한국어라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응답자들도 자신들의 한국어 실력이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온 이주노동자들보다 훨씬 뒤진다고 말한다. 심지어 한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도 언어 문제로 고통 받는다고 하였다. 언어 문제에 가로 막혀서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에게는 한국사회의 지원과 관심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까닭으로 언어로 인한 문제나 오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작업장 내에서도 그나마 한국어로 써있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물어서 대충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갑자기 말로 지시하는 것은 알아듣기 어려워져 맡겨진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도 흔하다.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회사에서 무능하고

어리석다는 비판을 많이 받는다. 페루에서 온 움베르토(Umberto, 37세)의 사례는 이들의 고충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회사에서 상사들이 갑자기 새로운 일을 하라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데, 잘못 알아듣겠다고 하면 짜증을 내면서 다른 노동자들은 다 잘 알아 듣는데 너는 왜 그러냐고 화를 낸다. 심지어 일을 하기 싫어서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냐고 핀잔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때로는 몰라도 아는 척 하고 그냥 넘어간 다음에 나중에 다른 핑계를 대서 일을 잘 못했다고 둘러대는 일이 많다. 이런 일이 수시로 발생하니깐 나도 힘들어서 고충이 많다”. 물론 동남아시아 등 인근 국가에서 온 이주노동자들도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는 고사하고 작업 현장에서 간단한 업무 지시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지만 (Kim S. 2008, 168)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훨씬 심각하다.

작업장 내에서도 중국, 동남아 등 다른 국적의 이주노동자들로부터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다. 같은 이주노동자들 사이에 충돌이 생길 경우에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은 소수라서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이 곤란하다. 예를 들면 노동자 사이의 일의 분담, 작업 조건, 고용주와의 관계, 급여, 작업시간, 작업환경, 복지시설 등 여러 분야에서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기는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수가 많은 다른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은 작업장 내에서 부당하거나 불편한 일이 생기면 가끔 집단적으로 대처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도 하는데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은 그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공장에서 4년간 일을 하다가 지금은 건축노동일을 하는 아르만도(Armando, 36세)의 사례는 작업장 내에서 이들의 어려움을 잘 말해준다. “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에 어느 날 출근해보니 나의 업무가 바뀌어 있었다. 확인해보니 사장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는 일을 재조정해서 생산성을 높이려는 요구를 하자 동남아 출신의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상의를 해서 좋지 않은 환경에서 하는 힘든 일을 나에게 배정해 놓았다. 너무 화가 났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고,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다”. 이렇다 보니 타국가 출신의 이주노동자와 교류가 거의 없다. 타국가 출신의 이주노동자가 많은 업체 내에서도 소외되고, 안 좋은 일이나 좋지 않은 작업시간에 해야 하는 일을 중남미 이주노동자에게 떠맡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언어 문제로 인해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거리를 찾다가 조금 지나면 거리에서 액세서리 판매 등 자영업에 많이 종사한다. 이 경우에는 노점상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가게 한쪽에서 물건을 판다.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면 한국어가 서툴러도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문제가 적다. 오히려 한국어로 한두 마디만 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국어를 잘 한다고 오히려 신기해하면서 물건을 사주기도 한다. 때로는 길거리에서 한국사람들이 이들에 대해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지나칠 정도로 호의적 반응을 보일 때도 있다. 거리에서도 사람들이 중남미 이주노동자를 보면 그냥 잠깐 관광을 왔다가 가지고 온 물건을 팔아서 여행비용을 충당하려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불법 이주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국인도 있다.

처음에 한국에 와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현재 거리에서 액세서리 판매를 하는 베로니카(Veronica, 44세)의 사례는 언어 문제로 인한 직업의 변화과정을 잘 보여 준다. “공장에 다닐 때에는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고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심리적 압박감이 컸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것을 선택했다. 장사를 시작한지 5년이 지났는데 2-3년 전 까지만 해도 가격이 싸서 제법 많이 팔렸다. 페루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에게 부탁해서 한 달에 한 두 번씩 비행기로 보낸 물건을 받아서 판다. 그러나 이런 소식을 접한 페루인들이 너도나도 액세서리 판매에 많이 참여하면서 지금은 경쟁이 매우 치열해져서 점차로 판매액이 줄어들었다. 게다가 지금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액세서리를 파는 상인들까지 늘어나면서 예전보다 더욱 힘들어졌다. 잘 팔릴 때에는 한 달에 100-130만원 정도의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어서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60-80만원에 그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인들 중에도 여행을 다녀온 뒤에 그 지역의 액세서리를 정기적으로 공급받아서 파는 사람이 생겨서 시간이 흐를수록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밖에 한국에서 미군 등 외국인을 상대로 식당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한국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돈을 모아서 식당을 열게 되었다. 언어문제로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기는 곤란하였다. 그래서 미군들을 상대로 동두천에서 브라질 등 중남미 음식점을 열었다. 미군들을 상대로 영업하면 언어로 인한 불편함은 크게 줄었다. 미군 중에 라티노들이 많아서 스페인어를 사용할 수 있고, 또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학교에서 스페인어를 배웠기 때문에 스페인어로 간단한 의사소통은 전혀 문제가 없다. 지금은 평택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를 잘 하면 한국인 손님도 받을 수 있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서 한국 손님들은 서비스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 왔다가 그냥 가는 경우도 있다”(Teresa, 49세). 실제로 이 식당에서 조사를 하던 중에 스페인어를 전혀 못하는 미군들이 들어와서 주문을 하는데 언어 문제로 소통이 곤란해지자, 옆 자리의 라티노 미군이 영어와 스페인어로 통역을 해주어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듯 언어 등 다양한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하거나 적응하는 데에 많은 문제에 부딪친다.

한국의 사회문화 구조와 오늘날의 중남미 이주노동자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일을 하러 오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아서 어렵다. 또한 한국에 도착해서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여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활이 용이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경험하는 새로운 사회체제와 문화적 요소로 인해서 새로운 생활양식을 접하게 된다. 물론 어떤 요소들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를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조사대상자들이 응답한 것을 종합하면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좋게 평가하는 것은 치안, 질서, 청결함, 조용함, 독특한 문화, 생활양식, 음식, 편리한 교통시설 등이다. 특히 이들은 중남미 사회에 비해 한국사회가 매우 안전하여 거리를 늦게 돌아다녀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장점으로 생각한다. 대부분의 중남미 사회가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하여 대도시를 중심으로 각종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관료들의 부패로 인해 사회질서의 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다. 페루에서 온 로베르토는(Roberto, 33세)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표현했다. “리마에서 생활할 때에는 어디를 가도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해야 했다. 어디서 강도를 만날지 몰라서 날이 어두우면 거의 외출하지 않고 돈이나 귀중품을 항상 신경 써야 한다. 한국에 와서도 처음에는 페루와 유사한 줄 알고 밖에 잘 나가지 않았다, 그런데 다른 페루에서 온 사람들을 보니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술을 먹고 다녀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여 지금은 나도 별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하여도 마음이 편해서 좋다. 다시 페루에 돌아간다면 어떻게 치안 불안을 견딜 수 있을지 걱정된다”. 또 한국에서

는 어디든 시끄럽지 않아서 좋다고 한다. 중남미 국가들은 축제를 자주 하는 등 소란스런 일이나 행사를 많이 해서 종종 참기 힘든데, 이런 경우에 불평을 해도 상대방에서는 신경도 쓰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없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때로는 너무 조용해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때도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앞에서 열거한 여러 면에서 한국사회에 만족하고 있어서 생활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최근에는 고국에서도 한류 바람이 불어서 한국노래나 드라마가 담긴 CD나 DVD를 가족이나 친구에게 보내주면 매우 좋아한다고 한다.

특히 개신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사는 동안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새로운 경험을 했다고 말한다. 즉 천주교회에서는 평신도들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 동안 적극적인 종교활동을 하지 않았고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이해도 많이 부족했다고 한다. 그러나 개신교회에 오면서 성경을 읽는 등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자신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선교활동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개신교에서 새로운 동기부여를 받고 변화하는 것은 현재 중남미 여러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할 때와 거의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개신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한국에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면 선교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여러 명 있었다. 이들은 종교적으로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된 것이 매우 소중한 경험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종교적인 측면에서 한국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워서 한국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의 사회문화 영역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없지는 않다. 예를 들면 경쟁적 사회구조, 언어문제, 복잡한 인간관계,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 추운 겨울의 날씨, 독특한 관습 등이 이들을 어렵고 불편하게 만든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들을 상대하는 방식이 중남미 국가들과는 달라서 매우 애를 먹는다고 한다. 또 겨울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추워서 많은 옷을 입으려면 무거워서 생활이 불편하고 또 옷도 많이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도 크다고 했다. 그리고 직장에서 음식이나 술을 먹는 방식이 자신들과는 달라서 거절을 하면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설명을 하기 곤란할 때가 있다고 한다. 때로는 한국에 왔으면 한국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서 해야 한다고

강제로 권하는 일이 많아서 어렵기도 하다.

대체로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노동시장 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일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지만 문화적으로는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일본에서처럼 대대적인 사회적 관심이나 차별이 존재해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아서 생활하는 데 큰 불만은 없다고 한다. 이렇게 사회문화적으로 중남미사회에 비해 긍정적 요소가 더 많아서 한국에 남아있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한국과 일본의 중남미 이주노동자에 대한 비교문화적 이해

한국과 일본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시기나 방법 등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다. 1980년 이전까지 이주노동자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다가 1980년대에 조금씩 합법적인 절차를 얻지 못한 이주노동자가 다른 나라에서 들어왔고, 1990년대가 되어서야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다. 즉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입국허가는 지속적으로 완화하면서 단순 육체노동자들의 입국은 여러 가지 제한을 두어 선별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Lee and Park 2005, 147). 또 1990년대 이후에 다양한 경로로 불법 이주노동자가 많이 들어오고 관광비자나 단기 방문비자를 가지고 한국이나 일본에 들어와서 불법적으로 이주노동자가 되는 사례도 똑같이 증가하고 있다. 물론 한국에서 2003년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면서(Lee and Park 2005, 144), 일본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걷게 되었지만 그 동안의 기본적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해는 큰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중남미에서 온 이주노동자만을 고려하면 양 국가 사이에 상당히 이질적인 요소가 발견된다.

먼저 이주역사와 과정에서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혈통과 종족성을 고려하여 닛케이진을 활용하려고 시도했다.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이해하는 닛케이진을 이주노동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간주했다.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야 하고 임금수준도 높은 닛케이진보다 다른 나라에서 오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지만,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몰려올 경우에 발생하

는 문화적 마찰을 우려했다. 즉 경제적 과제의 하나인 노동이주에 문화적 요소를 감안하여 정책을 결정한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닛케이진과 더불어 다른 중남미인들도 함께 이주노동자 대열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켰다.

한국의 경우에는 중남미 교민의 수가 많지 않고 또한 중남미 국가로의 실질적인 이주가 1960년대 후반에 이루어져서 교민사회의 성격이 일본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교민들의 성격을 보면 1세대나 2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 동질성이 강한 초국가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Joo 2006, 205-214; 2010, 336-351). 심지어 교민들이 이주 당시의 생활 관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어서 지금은 한국에서 사라진 오래된 풍습도 중남미의 교민사회에서 발견되어 오히려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사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교민들이 거주하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일부의 젊은이들이 정치적, 경제적 목적으로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기도 하지만 그 수는 많지 않다. 따라서 한국의 혈통과 종족성을 이어 받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교민들이 중남미 이주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에서는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이 일본을 거쳐서 일부가 들어왔으며, 그 다음에는 여러 정보를 이용하여 한국에 직접 들어온 중남미인들이 많아졌다. 따라서 일본과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경제적 그리고 비경제적 요소가 결합되어 노동이주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 닛케이진들이 이주노동자로 활동하면서 실제로 닛케이진이 아닌 중남미인들도 더불어 노동이주를 하게 되었다. 중남미인들은 여러 방법으로 닛케이진의 뒤를 따라 일본에 도착하였으며, 일본에 온 다음에도 닛케이진들이 많은 곳에 함께 거주하는 등 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문화적 충격을 완화시켰다. 즉 실질적으로 중남미인들의 이주역사와 과정, 그리고 이들의 일본사회에의 적응에 닛케이진들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하겠다.

브라질 교민사회의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에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역이주를 하는 교민들도 있지만 대부분 한국문화와 한국어에 익숙하고 한국에 관한 정보도 브라질에서 충분히 습득하고 있어서 별다른 문화적 충격은 없다(Joo 2007, 172-180). 실제로 한국으로 역이주한 브라질 교민들의 경우에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소수에 한정된다.

그리고 역이주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어서 한국에서 특별한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도 일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역이주한 일부 중남미의 한국인들도 그 동안 한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경력이나 경험을 거의 인정받으면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어서 일본에서 단순한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닛케이진과는 뚜렷하게 대비된다. 이런 문제는 브라질 이외의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런 까닭으로 한국에 역이주한 중남미 교민들은 한국에 불법 혹은 합법으로 들어온 이주노동자와 뚜렷하게 구별되고 이들과 교류도 전혀 없는 형편이다. 현재 한국에서 극히 소수의 중남미 지역에서 역이주한 한국인들이 스페인어로 예배를 보는 교회 활동에 중남미 이주노동자와 함께 참여한다. 그러나 이런 교류는 종교적 의례에 국한되고, 실질적인 교류나 경제활동은 함께 하지 않는 실정이다.

일본의 사례에서 발견되는 것은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이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많이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차별이나 불합리한 대우도 많아졌다. 이것은 닛케이진이 일본인들이 기대한 바와 같이 일본어와 일본문화에 능숙하지 않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차별과 비난이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즉, 닛케이진들이 자신들을 향한 사회적 편견에 대해 일본인들에게 대항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자신들의 중남미 정체성을 강화하는 한편, 중남미 문화에 탐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닛케이진으로 인한 중남미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더불어 때로는 과장된 인식 등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이주노동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일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은 닛케이진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자신들의 언어나 문화에 빠져서 일본사회에 동화되기를 꺼릴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 이렇게 수가 많은 닛케이진과 중남미 이주노동자들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확산되고, 노동시장 이외에 문화, 교육, 공동체, 결혼과 가족 등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분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과도하게 개방적이고 의도적으로 도전적인 이주노동자 사회라는 인식이 사회 내부에서 퍼지고, 사는 곳도 지역적으로 집중된 경향이 있어서 이들에 관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일본사회에서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겪으면서 일본사회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문제를

돌이켜 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Sato 2004, 32).

거기에 비해 한국에서는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고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이들 또한 대부분이 합법적인 노동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을 자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주목을 받기 곤란하다. 오히려 동남아시아나 아시안 혹은 중국 등의 이주노동자보다 훨씬 덜 노출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그들 나름대로의 조직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또 중남미 이주노동자 사회가 극단적으로 폐쇄적이고 분산된 자신들만의 사회를 구성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는 거의 없다. 물론 그렇다고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이 외모나 피부색에 의한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극심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받게 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결 론

한국의 중남미 이주노동자는 동남아시아나 중국에서 온 이주노동자에 비해 독특한 이주역사와 과정, 적응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일본에 먼저 이주했던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중남미의 각 국가에서 한국까지는 실질적으로 거리가 매우 멀고 한국과 중남미 사회 사이에 언어와 문화가 매우 달라서 쉽게 이주를 할 수 없는 처지이다. 그러나 일본에 닛케이진이 노동이주를 시작하게 된 것을 계기로 닛케이진이 아닌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이 일본으로 오게 되고 이어서 일부의 중남미인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던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이 일본을 거치면서 한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었고, 한국의 경제적 사정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소도 함께 알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한국의 문화에 대한 기대심과 더불어 문화적 차이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들어서 현재까지 일정한 수준의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 물론 중남미 국가와 한국은 거리가 멀고 교통을 이용하는 비용도 매우 비싸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여건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해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찾기는 어렵다.

일본의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은 닛케이진의 존재로 여러 가지 혜택도 볼

수 있었고, 때로는 이들이 자신들의 불리한 처지를 대신해주는 방패막이 역할도 수행했다. 그래서 한국의 중남미 이주노동자보다는 여러 모로 유리한 조건이었다. 물론 닛케이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극심해지자 일본의 중남미 이주노동자들도 덩달아 이런 사회적 흐름에 빠져들게 되어 여러 형태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닛케이진이 존재하지 않았어도 중남미 이주노동자 사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것은 미국의 중남미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잘 말해 주고 있다.

일단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는 일본의 경우처럼 사회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되지 못했다. 그것은 일본과는 달리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고, 일본의 닛케이진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남미의 한국인 교민사회가 일본과는 사정이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중남미 출신 이주노동자들은 일본의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이 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형태로 사회경제적 활동에 참여하고 문화적으로 적응한다. 즉 가능하면 사회적 노출을 삼가고 문화적 차별성을 강조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자신들의 입장에서 생활에 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국에 와서 새로운 사회문화 구조에 포함되고 중남미 사회와는 다른 문화요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물론 한국의 사회문화구조가 모두 이들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고 이들 또한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적응과정을 살펴보면 한국사회가 다른 사회와 비교해서 어떤 문제와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새로운 시각에서 점검해 볼 수 있다.

노동이주의 원인, 과정, 배경, 형태, 내용, 영향, 결과 등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거나 해결하려고 할 때 경제적 예측이나 평가가 어려운 부분도 존재한다. 이것은 노동이주가 이주자를 보내는 사회와 이주자를 받는 사회의 경제적 격차에서 발생하지만, 실제로 이주자가 노동이주를 결정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주노동자들이 취업을 위해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갈 때에는 단순한 경제적 동기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즉 기계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항상 주어진 경제적

조건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문화적으로 선호하는 요소들을 선택할 수도 있다. 때로는 문화적인 영역에서 사회문화적 갈등이나 문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닛케이진의 등장은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사회문화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가 한번 들어오게 되면 이주노동자와 이들을 수용하는 사회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갈등과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것을 해결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부분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오는 방법과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되는 방식에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에서 온 이주노동자들과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 그러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이 일본을 거쳐서 오는 과정과 한국에서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점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중남미 지역에서 온 이주노동자의 수가 일본보다 현저히 적고, 또 여러 지역에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사회에서 부딪치는 문제가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국사회와 중남미 사회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고리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겠다. 즉 이들의 존재를 통해서 한국사회의 성격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고, 적절하고 의미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할 것이다. 결국 이주노동자의 생활에 대한 이해와 이들이 경험하는 사회문화 관계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슬기롭게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 Adachi, Nobuko(2004), “Japonês: A Marker of Social Class or a Key Term in the Discourse of Race?,”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31, No. 3, pp. 48-76.
- Adams, Richard H. Jr. and John Page(2005), “Do International Migration and Remittances Reduce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World Development*, Vol. 33, No. 10, pp. 1645-1669.
- Amemiya, Kozy(2002), “The ‘Labor Pains’ of Forging a Nikkei Community: A Study of the Santa Cruz Region in Bolivia,” in Lane Ryo Hirabayashi, Akemi Kikumura-Yano and James A. Hirabayashi(eds.), *New Worlds, New Lives: Globalization and People of Japanese Descent in the Americas and from Latin America in Japa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90-107.
- Aquino Rodríguez, Carlos(1999), “Migración internacional del trabajo: el caso de los peruanos en Japón,” Report presented to the 8th reunion of «Grupo de Trabajo de Desarrollo de Recursos Humanos del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pp. 1-10.
- Brettell, Caroline B.(2000), “Theorizing Migration in Anthropology: The Social Construction of Networks, Identities, Communities, and Globalscapes,” in Caroline B. Brettell and James F. Hollifield(eds.), *Migration Theory: Talking across Disciplines*, N.Y.: Routledge, pp. 97-135.
- Eversole, Robyn(2005), “‘Directed to the Poor’ Revisited: Migrant Remittances and Development Assistance,” in Lillian Trager(ed.), *Migration and Economy: Global and Local Dynamics*, Lanham, MD: Altamira, pp. 289-322.
- Higa, Marcelo G.(2002), “The Emigration of Argentines of Japanese Descent to Japan,” in Lane Ryo Hirabayashi, Akemi Kikumura-Yano and James A. Hirabayashi(eds.), *New Worlds, New Lives: Globalization and People of Japanese Descent in the Americas and from Latin America in Japa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261-278.
- Jang, Im-Suk et al.(2008), “Oegulin Nodongjaeui Sahoejeok Seobise Daehan Jeopgeunseonggwa Sahoe Yeongyeolmang (Accessibility and Social Networks of Social Services for Foreign Migrant Workers),” Proceedings for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pp. 1-23.
- Joo, Jong-Taick(2006), “Brazil Haninsahoeui Seonggyeokgwa Hanindeuleui Minjok Gwangye (Korean-Brazilian Society and Their Ethnic Relationship),” Ok-Pyo Moon(ed.), *Haeoe Hanineui Minjok Gwangye (Ethnic Relations of Overseas Koreans)*, Seoul: ACANET, pp. 175-218.
- _____(2007), “Korean Return Migrants from Brazil: Ethnic and Economic Aspects,” *Korea Journal*, Vol. 47, No. 2, pp. 160-183.
- _____(2010), “Culture and Ethnicity in the Korean Transnational Community in Brazil,”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Vol. 12, No. 2, pp. 323-356.

- Kajita, Takamichi(1995), "Characteristics of the Foreign Worker Problem in Japan: To an Analytical Viewpoint," *Hitotsubashi Journal of Social Studies*, Vol. 27, pp. 1-26.
- Kasamatsu, Emi(2002), "The Nikkei's Education in the Japanese Language in Paraguay: The Japanese Educational System and Its Influence on the Colonies," in Lane Ryo Hirabayashi, Akemi Kikumura-Yano and James A. Hirabayashi(eds.), *New Worlds, New Lives: Globalization and People of Japanese Descent in the Americas and from Latin America in Japa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126-140.
- Kim, Nam-Kyung(2008), "Oekukin Nodongjaui Jeonryakjeok Gwanribanggne Gwanhan Yeongu - Jeongchaekui Jeokhapseonggwa Jeokjeongseonguel Jungsimeuro(A Study on the Strategic Management of the Foreign Labors in Korea: The Policy Appropriateness and Adequacy Criteria)," PhD. Thesis, Dankook University.
- Kim, Su-Jae(2008), "Oekukin Nodongjaui Munhwajeok Galdeunggwa Daeung: Indonesia Nodongjareul Jungsimeuro(Cultural Conflicts and Responses of Migrant Workers: With the case of Indonesian Workers)," *Minjok Munbwa Nonchong*, Vol. 38, pp. 153-184.
- Kondo, Atsushi(2000), "Immigration Law and Foreign Workers in Japan," A discussion paper of Faculty of Economics, Kyushu Sangyo University, pp. 1-22.
- Kuwahara, Yasuo(2005), "Migrant Workers in the Post-War History of Japan," *Japan Labor Review*, Vol. 2, No. 4, pp. 25-47.
- Lee, Jeong-Hwan and Seong-Yong Yi(2007), "Oekukin Nodongjaui Iju Teukseonggwa Yeongudonghyang(Migrant Characteristics of Foreign Workers and Research Trends in Korea)," *Hankuk Ingubak(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30, No. 2, pp. 147-168.
- Lee, Yong Wook and Hyemee Park(2005), "The Politics of Foreign Labor Policy in Korea and Japan,"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Vol. 35, No. 2, pp. 143-165.
- Martin, Philip, Manolo Abella, and Christiane Kuptsch(2006), *Managing Labor Migr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Massey, Douglas S. et al.(1998), *Worlds in Motion: Understanding International Migration at the End of the Millenniu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6),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 Review and Appraisal," Anthony M. Messina and Gallya Lahav(eds.), *The Migration Reader: Exploring Politics and Policies*, Boulder, CO: Lynne Rienner, pp. 34-62.
- Masterson, Daniel M.(2004), *The Japanese in Latin America*,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Mooney, Margarita(2004), "Migrants' Social Capital and Investing Remittances in Mexico," in Jorge Durand and Douglas S. Massey(eds.), *Crossing the Border: Research from the Mexican Migration Project*, N.Y.: Russell Sage Foundation, pp. 45-62.

- Mori, Edson(2002), "The Japanese-Brazilian Dekasegi Phenomenon: An Economic Perspective," in Lane Ryo Hirabayashi, Akemi Kikumura-Yano and James A. Hirabayashi(eds.), *New Worlds, New Lives: Globalization and People of Japanese Descent in the Americas and from Latin America in Japa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237-248.
- Ninomiya, Masato(2002), "The Dekasegi Phenomenon and the Education of Japanese Brazilian Children in Japanese Schools," in Lane Ryo Hirabayashi, Akemi Kikumura-Yano and James A. Hirabayashi(eds.), *New Worlds, New Lives: Globalization and People of Japanese Descent in the Americas and from Latin America in Japa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249-260.
- Nishida, Miekko(2009), "Why Does a Nikkei Want to Talk to Other Nikkeis?," *Critique of Anthropology*, Vol. 29, No. 4, pp. 423-445.
- O, A-Reum and Hyeon-Jeong Yu(2009), "Minsokjihak Jeopgeuneul Tonghae Bon Bulbeobcheryu Oekukin Geunrojau Sobisaenghwal(Consuming Life of Illegally Staying Foreign Workers through Ethnographic Approach)," *Sobija Jeongbak Gyoyuk Yeongu(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Vol. 5, No. 1, pp. 49-68.
- Oda, Ernani(2010), "Ethnic Migration and Memory: Disputes over the Ethnic Origins of Japanese Brazilians in Japan,"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33, No. 3, pp. 515-532.
- Ogawa, Makoto(2005), "Current Issues Concerning Foreign Workers in Japan," *Japan Labor Review*, Vol. 2, No. 4, pp. 6-24.
- Ohmi, Naoto(2005), "Problems of Foreign Worker Policy in Japan: From the Labor Union Viewpoint?," *Japan Labor Review*, Vol. 2, No. 4, pp. 107-124.
- Pena, Pavel and Satoshi Ishii(2008), "Study on Adaptation Process to the Home Environment: The Home Environment of Peruvian Immigrants of Japanese Descent in Japan," *Journal of Architecture, Planning,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Vol. 73, pp. 1165-1171.
- Pérez, Ricardo(2005), "Unbound Households; Trajectories of Labor, Migration, and Transnational Livelihoods in (and from) Southern Puerto Rico," in Lillian Trager(ed.), *Migration and Economy: Global and Local Dynamics*, Lanham, MD: Altamira, pp. 49-75.
- Roth, Joshua Hotaka(2006), "A Mean-Spirited Sport: Japanese Brazilian Croquet in So Paulo's Public Spaces," *Anthropological Quarterly*, Vol. 79, No. 4, pp. 609-632.
- Sato, Makoto(2004), "From Foreign Workers to Minority Residents: Diversification of International Migration in Japan," *Ritsumeikan Annual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 pp. 19-34.
- Sharpe, Michael Orlando(2010), "When Ethnic Returnees Are De Facto Guestworkers: What Does the Introduction of Latin American Japanese

- Nikkeijin (Japanese Descendants) (LAN) Suggest for Japan's Definition on Nationality, Citizenship, and Immigration Policy?," *Policy and Society*, Vol. 29, No. 4, pp. 357-369.
- Takenaka, Ayumi(2004), "The Japanese in Peru: History of Immigration, Settlement, and Racialization,"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31, No. 3, pp. 77-98.
- (2009), "How Diasporic Ties Emerge: Pan-American Nikkei Communities and the Japanese State,"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32, No. 8, pp. 1325-1345.
- Tanno, Kiyoto(2010), "The Economic Crisis and Foreign Workers in Japan: Why Does Japan Treat Migrant Workers as Second Class Citizens?," *Japan Labor Review*, Vol. 7, No. 3, pp. 109-126.
- Tezuka, Kazuaki(2005), "Foreign Workers in Japan: Reality and Challenges," *Japan Labor Review*, Vol. 2, No. 4, pp. 48-71.
- Trager, Lillian(2005), "Introduction: The Dynamics of Migration," Lillian Trager(ed.), *Migration and Economy: Global and Local Dynamics*, Lanham, MD: Altamira, pp. 1-45.
- Tsuda, Takeyuki(1999), "The Motivation to Migrate: The Ethnic and Sociocultural Constitution of the Japanese-Brazilian Return-Migration System,"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48, No. 1, pp. 1-31.
- (2000), "Acting Brazilian in Japan: Ethnic Resistance among Return Migrants," *Ethnology*, Vol. 39, No. 1, pp. 55-71.
- (2003), "Domesticating the Immigrant Other: Japanese Media Images of Nikkeijin Return Migrants," *Ethnology*, Vol. 42, No. 4, pp. 289-305.
- Vela Borda, Joel(2006), "Impacto de las remesas de los peruanos residentes en Japón," *Cuad. Difus.*, Vol. 11, No. 20, pp. 133-151.
- Watanabe, Hiroaki(2005), "Human Resource Management for Nikkei Workers and the Increase of Indirect Employment," *Japan Labor Review*, Vol. 2, No. 4, pp. 72-106.
- White, Paul(2003), "The Japanese in Latin America: On the Uses of Diaspora,"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Geography*, Vol. 9, No. 4, pp. 309-322.
- Yamada, Masahiko(2010), "The Current Issues on Foreign Workers in Japan," *Japan Labor Review*, Vol. 7, No. 3, pp. 5-18.
- Yi, Seon-ju et al.(2009), *Daminjok·Damunmha Sabaerouni Ihaengeul Wihan Jeongchaek Paradigm Guchuk III(Study on Policy Paradigm of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IV): Policy Development for Productive Multicultural Society)*, Seoul: Hankuk Yeoseong Jeongchaek Yeonguwon(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